

제주에 첫 산림복지단지 조성 ‘초읽기’

애월읍·한경면 각각 1곳으로 후보지 압축
2023년 준공… 이달부터 타당성조사 용역

제주에선 처음으로 추진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산림복지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해 부지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는 애월읍과 한경면 각각 1곳이다. 산림복지단지란 그간 휴양림, 수목원, 생태숲 등으로 분산해 제공하던 산림문화·교육·치유·관광 등의 산림복지

서비스 모듈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주요시설에는 장기체류시설, 치유센터, 산림교육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이 포함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경우 산림면적이 80만㎡ 이상이어야 하며 제주시는 국·공유지 가운데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두 후보지를 선정,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제주의 경우 동부지역에 붉은오름·절물 휴양림, 생태숲, 수목원 등의 산림휴양시설이 편중돼 있어 그간 서부지역에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361억원(국비 180·지방비 181)을 투입해 80ha 이상의 규모로 애월읍이나 한경면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산림청에 산림복지단지 심의와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

을 받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산림청의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경우 2020년부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각도로 타당성을 검토해 부지를 선정할 것이며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되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향토자원 홍보·판매통로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되면 1개소당 생산유발효과는 2172억원, 소득 유발효과는 510억원, 지역주민 17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한 여성 직장인이 위탁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라며 원룸을 제공해 마련된 ‘행복하우스’ 오픈식이 열렸다.

결혼전 살던 원룸 위탁아동 위한 공간으로

한 여성 직장인이 결혼 전 살던 원룸을 위탁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저가에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는 최근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원룸에서 황석규 센터 운영위원장과 김상훈 센터 자립위원회의 위원장, 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하우스’ 오픈식을 개최했다.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통금시간이 정해진 기숙사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려운 사정을 들어도 해결해줄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위탁지원센터 직원들에게 양씨가 자신이 살던 원룸을 위탁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해왔다. TV와 세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행복하우스 개소 40대 여성 직장인, 매각·임대 대신 제공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행복주택’ 개념에서 착안한 행복하우스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탁아동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평소 위탁아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양연숙(47)씨가 자신의 집을 제공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뒤 때마침 거처가 필요한 위탁아동이 나타나면서 시작됐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얼마 전 팔순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위탁가정)가 전화를 걸어와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된 손녀딸이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정형편 때문에 손녀가 늦은

타기, 침대 등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공동모금회 등의 후원으로 침구류와 그릇 등도 마련할 수 있었다.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양연숙씨는 “내가 가진 걸 아이들과 나누기 위해 임대료도 받지 않으려고 위탁지원센터에 맡긴 것”이라며 “센터는 수혜 대상인 위탁아동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면 소정의 임대료를 제시했지만 얼마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씨가 제공한 원룸에는 장래 경찰관을 꿈꾸는 A양(20)이 입주해 살고 있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서귀포시 ‘문화도시’ 타이틀에 도전

문체부에 ‘연인(然人)의 문화도시 서귀포’로 신청
내년 최종 결정… 지정되면 5년간 최대 200억 지원

서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타이틀에 도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귀포시는 ‘연인(然人)의 문화도시 서귀포’를 비전으로 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 지정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문체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 서귀포시는 문화도시 예비사업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료 후 20

19년 말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문화도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서귀포시의 문화도시 조성 계획은 ‘연인의 문화도시 서귀포’를 비전으로, 핵심가치는 ‘서귀포다운 Life Style, 노지문화 완성’, 목표는 ‘서귀포 문화원형의 가치 공유’, ‘참여하는 문화공동체 확산’, ‘자연과 조화로운 문화생활의 일상화’로 수립됐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문화씨앗 나누기’와 ‘문화 농부 키우기’로 이원화해 문화자산과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사회적 공유기반 확보, 문화인력 양성 및 문화공동체 형성과 확산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엔 문체부에 제출한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컨설팅과 보완을 거쳐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오는 10월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승인을 받으면 1년간의 예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도시 추진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을 구성후 2019년 9월 문화도시 지정 심의 요청을 하고 2019년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0년부터 본격적인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5년간 최대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양승열 문화예술과장은 “시에서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검토·보완해 내년에 문화도시로 최종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도,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 이달부터 1인당 최고 2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기초연금의 기준금액을 최고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고연금 지급액은 현재 단독가구인 경우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3만592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연금 지급액도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19.1% 인상된다. 지난 7월기준 도내 노인인구 9만4607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8951명(62.3%)으로 인상액은 9월 급여(9월 25일 지급)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65세 이상자로,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서귀포시 모 마을내 연못이 활용방범을 찾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 사진=조흥준기자

마을 연못 관리 안된 채 ‘방치’

연못 주변 쓰레기장 전락… 주민들은 활용방안 고민

서귀포시 모 마을 내에 있는 연못이 마땅한 활용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로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마을 구성원의 왕래가 잦고 근처에 게스트하우스도 있어 관광객의 출입이 잦은 곳이지만 연못과 주변 관리 부실로 인해 지나가는 이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일 마을회 등에 따르면 해당 연못은 마을 소유로 지난해 행정시의 지원으로 배수관로 공사를 마쳤지만, 마을 내 주변 농지가 관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연못의 물을 농업용수로 끌어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못 내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일

정량의 물이 항상 고여 있고, 급기야 부영양화 및 녹조 현상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연못 바로 앞에는 클린하우스까지 설치돼 있고, 전체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연못 주변이 쓰레기장처럼 변해가고 있는 상태다. 이날 찾은 연못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고 냄새도 풍기고 있었다. 또 연못 주변으로는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마을회 측은 “실제 연못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1~2가구 정도로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맞다”며 “연못을 매립해 주차장이나 체육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지만, 개발부담금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연못 주변에 클린하우스가 있어 전체적으로 쾌적한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며 “마을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더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행정시에 연못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연못은 마을 소유라 관리 대상이 아닌 데다가 아직 마을 연못과 관련해 서류 등을 받은 적은 없다”며 “주차장 등 다른 시설을 만들려면 우선 연못을 매립해야 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독창적 제주의 맛 알린다 내달 5~7일 제주음식박람회

제주시가 10월5~7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탐라순미도(耽羅巡味途)’를 주제로 ‘2018 제주음식박람회’를 연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제주음식박람회 주제인 ‘탐라순미도’는 ‘제주음식이 펼쳐진 맛의 길’을 따라 눈과 입, 몸으로 즐긴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주음식박람회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의 흑우·흑돼지·제주마와 지역특산물로 생산된 가공식품 등을 홍보·전시·판매하는 장으로 채워진다. 또

제주의 천연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음식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음식 ▷창작요리 ▷유명 셰프 초청 요리강좌 ▷라이브 요리경연 ▷가족경연 ▷팔도요리경연 등이 예정되어 있다. 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원을 받아 각 분야별 최우수작품 수상자에게 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제주흑우와 다급바리해체소 ▷해녀음식 전시 ▷김만덕 쌀로 만든 음식 나눔행사 ▷4.3음식 전시 등도 준비됐다. 이현숙기자 hsllee@ihalla.com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실생	2,3년생
유라(극조생)	6년생
감평(레드향)	2,3,4,5,6년생
황금향	5년생
천혜향	2,3,4년생
한라봉 M16	6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19년 봄 출하 예정 묘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레몬
아마나스 · 땃유자 · 아수미

조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농장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영와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방향 300m 위치)

종자업 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3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유라실생	1년생
• 원터프린스	1년생
• 남진해(나스미)	1년생
• 한라봉(마나베데고)	4년생
• 일남1호, 히로시마7호(극조생)	4년생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기능성 밀감	4년생
• 천전(가와대) 온주	천지향 5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종은 직접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서귀종묘

010-6677-5753

감귤요목

* 아스미 당도 17.4브릭스	1,2,3년생
* 유라실생	1,2,3년생
* 유라조생 (감귤박람회 최우수 감귤)	7년생
* 궁천	5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7년생
* 레드향(무독) 천혜향(무독)	1,2,3년생
* 고림 남진해 수루미 레몬	2년생
* 한라봉 7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그 외 많은 품종 있습니다.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